

이제까지 들여다 본 과학의 스캔들은 과학자 특유의 '제1 발견자' 병때문이다. 과학세계에서는 '제2 발견자'나 '보고자'에게는 아무런 영예나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과학자들은 모두가 항상 '제1의 발견자'가 되는 꿈을 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최초'는 우리나라에서도 과

서 데이터를 날조하거나 경쟁자를 속여서라도 제1의 발견자가 되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언티스트 게임」을 저술한 미국 산티피스트해양연구소의 칼 신더맨소장은 "과학자들간의 선취특 경쟁은 과거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주 동기였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출세와 부의 획득에 목표가 이동

연구비리에 얽힌 스캔들 과학사 <하>

최근 구미에서는 과학연구분야에서 부정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정부차원에서 과학계의 비리 예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이같은 연구비리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강 건너 불'로만 여길 것은 아닌 것 같다. 연구비리에 얽힌 과학이면사를 3회에 걸쳐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되는 인상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의 과학자들은 지위나 경제적인 혜택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대한 명예가 주된 경쟁의 동기가 되었으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더구나 최근에는 첨단과학이 그대로 산업에 응용되는 추세에 따라 제1을 위한 경쟁이 물질적인데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이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플랑크 상수'와 같이 자신의 이름에 EPONYM이 붙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 '독창적인 발견'에 주어지는 노벨상에서 보듯이 엄청난 상금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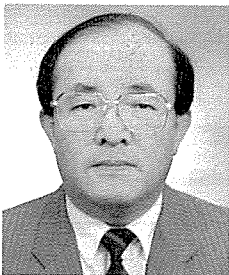
노벨상수상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보면 비단 상금뿐만 아니라 소속 학회에서나 대학연구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엄청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고체 물리학이나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분야에서는 최초의 발견자가 연구로 해서 일약 백만장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잉홍보때문에 이따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과학에서 최초의 경쟁은 냉엄하면서도 치열하다.

'제1 발견자'의 꿈 경쟁치열

가령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등 예능분야에서 세계 정상이 되는데에도 역시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일은 없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간에 기능이 최고에 도달한다면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과학에서는 시간을 끌다가 제2의 보고자가 되어 버리면 일생을 바친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



姜 信 龜
(문화일보 출판국장)

노벨상선정 수백만달러 뇌물설

이렇듯 '최초 발견'에 대해 명예 외의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자 과학자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의 결투」를 저술해서 화제를 모았던 미국 과학저술가 웨이드는 “노벨상을 둘러싼 음모와 기만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간의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노벨 의학상 선정을 둘러싸고 수백만달러의 뇌물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 상을 둘러싼 스캔들이 점차 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일탈(逸脫)행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회과학에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사회학을 개척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머튼교수는 “선취권을 놓고 과학자들간의 경쟁은 때로는 과열현상을 일으켜 일탈행위가 일어난다. 정도가 지나쳐 전체를 날조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학자는 성직자처럼 엄격한 초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튼은 과학은 객관적인 근거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활동과 다르게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의사(擬似) 종교적 과학관을 제창하고 있다. 머튼의 과학사회학은 과학은 냉엄한 객관주의의 세계이므로 인간적인 요소가 파생한 각종 스캔들은 용인될 수 없으며 그

래서 과학스캔들은 과학활동의 극미한 부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머튼의 과학사회학 이후 과학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포스트 머튼주의자들은 “과학도 인간이 주체가 되는만치 인간적인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며 머튼의 의사종교적 과학관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과학도 인간이 영위하는 것인 만치 과학스캔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 하임같은 사회학자들은 과학스캔들 속에 담긴 ‘인간적인 성격’을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머튼의 의사종교적 과학관은 과학연구에서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방어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포스트 머튼주의자들은 설사 외부의 개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집단 내부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면 그리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적중시 ... 우리나라도 연구비리

과학자들의 일탈행위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학문의 자유문제에 관한 논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국제교류가 빈번해지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교환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전세계의 과학연구가 연구과정의 규격화, 동일화가 진행되어 연구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정도로 치열해졌다.

더구나 업적주의, 물질주의의 팽창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 부실한 연구들

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업적을 내려는 풍조 또한 만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WTO 이후 보호무역주의와 기술민족주의가 등장, 과학이 국가민족에 충성을 하고 기술적인 응용에 치중하라는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과학 자체의 학문의 자유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다 보니 과학연구중 부실한 것도 생기게 되고 또 과학비리가 늘어난다는게 과학사회학자들의 지적이다. 하여튼 과학연구에는 자의든, 타의든 왜곡현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최근 정년 은퇴를 한 일본의 한 과학자는 “연구보고서 가운데 상당수가 결과가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이 있다”고 고백, 일본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전통을 중시하고 과정을 지키려는 일본에도 이른바 과학비리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일본 과학계가 그럴 정도이면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업적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연구를 둘러싼 비리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과학계도 연구부정 내지는 비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불신을 받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홍보가 말썽이 된 일도 있는데 빗나간 ‘세계 최초’ 명 때문에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